

여 90.8.3

일하는 엄마는 안절부절

‘직장이냐 아이냐’

직업의식 투철한 젊은 여성들의 갈등

직장이냐 아이냐.
여성들은 언제까지 이 양자택
일위 고민을 되풀이해야 하는
걸까?

한때 결혼이나 출산과 함께
직장을 떠나는 직장여성들을
놓고 ‘직업의식의 결여’라는 진단
을 씌사리 내렸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평생 직업
을 갖겠다는 철저한 직업의식을
가진 여성들도 자신의 아이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해 직장을 포기하
거나 직장일을 위해서 아이 기르
기를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
는 심각한 갈등상황을 보이고
있다.

“회사에 탁아소가 생기면 제일
좋겠어요. 불가능할까요!” 오지
연 씨는 자신이 복직할 직장

직장 탁아소가 생기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고 있으나 현재로서
요원한 꿈일 뿐이다.”

이 승락했을 것이라고 정을정
씨는 분석하고 있다.

아이 기르기 문제로 이산가족
이 돼 버린 정 씨 부부는 처음에
는 일주일에 한번씩 아이를 보러
갔지만 요즘은 정을정 씨가 일이
고되지고 산후조리 못한 후유증
이 물려오기 시작하자 남편만
매주 내려가고 정을정 씨는 한달
에 한 번도 겨우 가고 있다.

시택에 한 번 갈 때마다 드는
비용은 5만원에서 10만원선.
시아머니의 도움이 있어도 한달
이면 이삼십만원이 우습게 깨져
버린다고 한다.

미혼시절부터 탁아소와 유아원
경영이 꿈이었을 만큼 아이 기르

기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정을정
씨는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는
아들이 버릇 없게 자라나는 것이
영 불만이다. 시택에 갈 때마다
버릇없는 아들을 한차례씩 때려
주고 온다는 정을정 씨는 경제적
인 여건이 풀려서 자기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아들을 데리고
와 키우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정을정 씨는 평생 자기일을
할 작정이어서 아이를 누군가에
게 맡겨야 한다. 정을정 씨가
바라는 탁아소나 놀이방의 조건
은 “돈은 좀 비싸도 좋으니 아이
들 교육에 애착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

직장은 다녀야겠는데... 고민하는 임산부

곽소희(30세) 씨는 9월이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직장을 포기
할 수 없고 아이를 맡길 데는
없어서 고민 중이다.

여건이 좋은 직장이라서 놓치
기도 아깝고 가정형편 상으로도
맞벌이를 계속해야 할 상황인
곽소희 씨는 고민 끝에 출산
휴가가 끝나는 대로 당분간 대전에
있는 시택에 아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서울에서 사람을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면 자기

애기처럼 돌봐주기 어렵다”는
우려와 30만원 이상이 드는 비용
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택을
택하기로 했다.

“직장에 탁아소가 있으면 제일
좋지요. 일반 탁아소라도 시설이
깨끗하고 아이들의 지적인 교육
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교사들
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곽소희 씨는
월 20만원 정도를 적절한 비용이
라고 꼽았다.

사례

복직 약속 돼 있어도 아이 맡길 데 없어 포기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있는
오지연(관악구 신림동·27)
씨는 몸조리가 끝나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
다. 잡지사, 신문사 기자로 일했
던 오지연 씨는 임신 3개월쯤
유산중절이 있어 직장에 사직서
를 내야 했지만 출산을 하고
몸이 회복되면 큰 변동이 없는
한 복직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출산 후 2개월간 아이를 돌보
면서 무척 행복하고 즐거운 기
분을 느낄 수 있었지만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일에서 멀어져서
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 오지연 씨에게는
아이 맡기는 문제만 해결되면
복직할 수 있는 직장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모 주간신문사
에서 유능한 기자로 평가받았던
오지연 씨는 임신초기에 건강문
제로 사직서를 내면서도 1년
후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복
직할 수 있다는 언질을 받아 놓
았던 것이다.

“아이가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러나 부담이 너무 커요. 이제
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와 같이 있으면 즐겁
지만 평생 이렇게만 지내야 한
다면 끔찍해요.”

그러나 아이 말을 사람을 수
소 문하던 오지연 씨는 매일 오
는 파출부에게 아이를 맡길려면
한달에 40만원 가량이 든다는
사실을 알았다. 40만원이라면
오지연 씨가 받을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었다.

또 세간에 떠도는 흉흉한 소
문들은 낯선 사람에게 아이를 맡
기는 엄마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었다. 매일 소주 한 숟가락씩을
먹여 아이가 알콜 중독자가 되
어 버린 사례를 바로 옆에서 접
했던 오지연 씨는 파출부에게
아이 맡기는 일을 자연스럽게 포
기해야 했다.

동네에 있는 놀이방을 이용하

하고 드물게 있는 탁아방의 경우
도 최소한 백일이 넘은 아이만
받아 주고 있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손
자를 맡아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오지연
씨는 고생하며 살아 오신 할머니
들께 또 다시 짐을 안겨 드리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신생아를 맡아 줄 탁아소는
없고 개인 탁아교사를 쓰기에는
경제력이 못 미치고, 부모님께
폐 끼쳐서는 안되겠다는 도덕관
을 가진 오지연 씨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취업을 포기하
는 것이었다. 오지연 씨는 아이
가 조금 더 자라서 월 20만원 가
량의 비용으로 잘 아는 동네 아
주머니나 놀이방을 이용할 수 있
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직장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좋은 조건
의 취직기회가 나아 이용지는

내집 마련 위해 이산가족을 선택

이태원 면세점에서 유능한
세일즈 우먼으로 일하는 정을정
(부천 고강동·31세) 씨는 월
8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
소득자이다. 9시 출근에 8시 퇴
근, 한 달에 세 번 밖에 쉴 수 없
는 정을정 씨의 직장 생활은 잠
시 옆으로 눈돌릴 틈조차 없이 뻘
뻘하기만 하다.

정을정 씨의 두살 난 아들은
태어난 지 한달 후부터 엄마
곁을 떨어져 청주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기르고 있다.

시에 내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정을정 씨는 결혼
하면서 지금까지 잠시도 직장을
쉬지 않았다. 아들을 낳았을 때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한달간의 출산휴가가
끝날 무렵부터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을 찾았다.

마땅한 곳이 없음을 깨달은
정을정 씨 부부는 청주에 있는
시택에 아이를 맡기기로 결정
했다. 전 직장에서 일하던 시

변화기 공백기에서 여성은 피해자로 남아

사회는 여성의 취업을 요구하
면서도 그를 뒷받침할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의 공백기
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이 떠맡고 있다.

우선 스스로 선택해서 아이
기르는 주부로 남아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어쩔 수 없이 취
업을 포기하는 대다수의 여성
들이 그 피해자다. 또 제도적인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의 취업욕구는
자칫 ‘이기주의’로 몰리기 쉽
다. 출산 후 취업을 위해 아이
를 맡기려는 노력을 했던 여
성들은 주변의 물이해를 아
픈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
다.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벌고
여자가 출세하면 얼마나 출
세하겠느냐? 돈으로 따지자면
월급보다 아이 기르는 비용이
더 든다”는 식의 비난으로 여
성의 자아실현 욕구를 이기주
의라고 몰아부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지배적인 듯 보
인다.

일하는 여성 당사자 외에 피
해자는 또 있다. 딸, 며느리의
취업을 위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할머니들이다. 대부분의
취업여성들이 육아의 해결방
식으로 생각해 온 방법이 이들
친·인척 할머니 노동력의 이
용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인권문
제를 생각해 볼 때 “손자는
할머니들이 당연히 키워 주
어야 한다”는 생각은 젊은 세
대의 이기주의라는 비난도 나
오고 있다. 또한 젊은 여성
들의 짐을 사회적으로 해결
하지 않고 나이 든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는 지적도 나
오고 있다.

‘84년 김영탁이산가족화

과 접맥되는 계기를 마련하
면서 사회여론의 관심이 되
어 왔다. 정부측에서도 '89
년 9월 아동복지법 시행령
으로 저소득층 지역의 탁아
소를 집중 설치할 의지를 보
여 왔다. 운동권이든 정부든
앞으로의 탁아입법 제정으로
모아지고 있는 탁아에 대한
관심은 빈민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 여성들 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그러나 이제는 사무·전문
직 여성들의 탁아문제 해결
도 새로운 사회운동의 관심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들은 저소득
층에 비해 웬만한 경제력이
갖춰져 있고 육아에 대한
관심과 탁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오히려 사회운동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여지
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탁아문제를 사회운동의 맥
락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정
병호(일리노이대 동양학
연구소 연구원) 씨는 그
동안의 탁아운동이 빈민
운동의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사무·전문직 여
성들의 탁아문제도 ‘탁아
운동의 다차원화’라는 맥
락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중간층의 문제는
탁아제도가 마련되면 자연
히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에서 탁아운동을 빈민운
동이나 자선적 감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습
니다. 그러나 탁아운동은
어른들의 사회운동이 아
닌 교육문제의 차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대
안적이고 실험적인 노력
들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러한 시기에